AI 불교 명상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국불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1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서
'AI시대 선명상과 교류분석' 주제
보일 스님 "윤리 기준 마련 시급"
박희승 "선명상, 스트레스 치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한국불교상담학회가 개최한 제23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일 스님이 'AI시대의 불교 명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명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 수행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불교상담학회(학회장 안양규)는 11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01호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상담: AI시대의 선명상과 교류분석'을 주제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명상의 본질을 지키는 방안과 불교상담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시대의 불교 명상'을 주제로 발표한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은 "AI가 인간의 감정과 뇌 반응을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며 "기술이 명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시대에는 수행의 주체성과 전통적 의미를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스마트폰 연동 뇌파 측정기, 감정 집중도 분석 프로그램, 수면 불안 관리 앱 등 이미 대중이 사용하는 AI 기반 명상 기술을 소개하며 변화의 속도를 짚었다.

과거 전문 장비에서만 가능했던 미세 신호 분석이 일반 기기로 가능해지면서 "명상 상태 자체가 기술에 해석되고 개입되는 흐름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해 음악, 진동, 시각 효과로 되돌려 주는 자동 명상 시스템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스님은 "집중이 흔들릴 때 기술이 즉각 개입하는 구조에서는 수행의 주도권이 기술로 넘어갈 수 있다"며 "명상이 '자기 성찰'이 아니라 '기계의 안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VR 기반 가상 선방, 로봇 명상 안내 프로그램 등 새로운 수행 환경의 확대도 "접근성은 높지만 전통 명상과의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윤리 문제 역시 비중 있게 제기됐다. 스님은 유네스코의 '신경기술 윤리지침'을 언급하며 감정, 주의집중, 불안 상태 등 '내면 정보(Neuro-data)'가 수집되기 쉬운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종교 윤리가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일 스님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내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며 수행 공동체가 더욱 민감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AI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자 도반, 때로는 파트너로 이해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며 "AI와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에는 인간의 주체성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어쩌면 '신인간적 존재(New Huma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두 번째 발표는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장 선명상 특별보좌관이 맡아 '조계종 선명상의 대중화와 실천'을 주제로 명상의 일상화 흐름과 종단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했다.

박희승 보좌관은 선명상이 "지식과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도 줄지 않는 인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간화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계종이 간화선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명상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간화선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넓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허만세 교수(계명대)가 '교류분석(TA) 성격적응이론을 통한 불교의 삼독 해석'을 통해 상담 현장에 불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안양규 학회장과 윤종갑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각 발표에는 지원 스님(부산대), 정귀연 교수(동국대), 김지명 교수(동국대)가 논평자로 참여해 발표 주제를 심층적으로 확장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정산 스님 상임대표 추대

11월 14일, 제24차 정기총회



실천불교승가회가 11월 14일 실천승가회 사무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산 스님(부산 황련사 주지·사진)을 새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정산 스님은 승가회의 출범 과정과 함께해 온 오랜 인연을 전하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스님은 "민불련 활동을 시작으로 큰스님을 모시며 정토구현승가회와 실천불교승가회를 만들고, 어느덧 40년이 흘렀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승가회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1980년 10·27법난을 직접 목도한 후 교단 민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민불련·정토구현승가회·실천불교승가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황련산 케이블카 개발 반대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 등 지역 내 사회참여 실천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실천불교승가회는 정기총회에서 임원단도 재정비했다. 상임고문에는 지선·청화·성관 스님, 명예대표에는 법안·시공·원경 스님이 위촉됐다. 기존 명예대표였던 퇴휴·일문 스님은 "직함이 활동에 무거운 면이 있다"며 '지도위원'으로 직함을 변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부산정각원, '제14회 연말 자비나눔'

김장김치 및 장학금 등 전달



창립 3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불교계 자비 실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정각원은 11월 19일 사상 르네시떼 야외공연장에서 '제14회 연말 자비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정각원은 이날 사상구 취약계층 1500여 명에게 김장김치와 라면 등 겨울나기 식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김장김치 300박스(박스당 10kg)와 라면 300박스(박스당 20개)는 사상구 12개 동에 전달됐고, 사상구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학생 13명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육개장 1500인분이 무료 제공됐다.

향공 스님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문화 지평 넓힌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향기로운문화동행, 11월 16일
'차 통한 세계와 문화 교류'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에서는 지역 차문화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 온 인물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가 지역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고, 차인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장으로 열렸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스님)은 11월 16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주제는 '차를 통한 세계와의 문화 교류'로, 허황옥을 기리는 헌향, 헌화, 헌다, 헌시, 헌무가 개막 의례로 펼쳐져 한국 차문화의 뿌리와 역사적 맥락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날 축제에는 정오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도명 스님(밀양 여여정사 주지), 박형준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계춘 신부, 정종복 기장군수 등 지역 불교계와 정치 및 교육,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차문화 단체 관계자와 지역 차인, 시민들도 함께해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박유순 신라차문화원장이 허황옥차인대상을, 성림 스님(부산영산재보존회 이사장)이 김수로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부산시장, 교육감, 시의회, 기장군수 표창과 국회의원 표창 등으로 지역 차문화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 온 인물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보혜 스님은 "소리 없이 헌신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번 축제가 큰 격려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12회까지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주신 많은 분의 인연 덕분이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차 한 잔의 고요함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잃어 버린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며 "차문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저소득 어르신에 난방비

40세대에 1000만원 전달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 연탄불공회가 11월 19일 해운대 대광명사에서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연탄불공회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지원을 통해 부산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 40세대에 총 1000만원의 난방유가 전달됐다.

연탄불공회는 2017년 범어사 무비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나눔 사업으로, 초기 연탄 후원에서 현재는 난방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목종 스님은 "지혜와 공덕은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오늘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22호) 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등 보험금 지급에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하여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